

전북형 창업패키지... 기업 성공의 징검다리

전북자치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이 도내 창업기업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성공의 발판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주대는 지난 20일 더메이 호텔에서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고도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이재·서난이·최형열 도의원, 이성국 전주시의원, 전북자치도 창업지원과장,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해 2023년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15개 창업기업이 참석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한 창업기업들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등 도의 창업지원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 원), 특허 프

그램, 판로개척, 투자유치 지원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전주대와 군산대가 주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 시행인 지난 2023년도에는 28개 창업기업 모집에 309개 기업이 지원,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작됐으며, 9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741억 원의 연 매출, 124명의 신규 고용, 6억5,000만원의 투자유치, 66건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참여기업 중 하나인 (주)헤어피아 테크놀로지는 생산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혁신 고객 패션가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북미 아마존 유통채널에 입점

하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김이재 도의원은 "전북 자치도의 지원사업이 창업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자치도에서 적극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최형열 의원은 "도내 창업기업들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이현희 창업지원과장은 "전북형 창업패키지를 포함한 창업 지원정책에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맞춤형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4~2025 동계시즌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특가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겨울엔 역시 스키"... 시즌권 판매

무주덕유산리조트, 10월 4일까지 1차 특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4~2025 동계시즌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특가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고객들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시즌권 종류가 다양해졌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주중 주말 스키콘도라 이용이 가능한 통합권I과 주중에만 스키콘도라 이용이 가능한 통합권II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통합권II는 시즌권 특가 판매 기간에만 구입이 가능하며, 특가 판매 기간 후에는 통합권I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과 부영그룹이 강릉 태백에서 운영 중인 오우리조트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주·오우 통합 시즌권도 판매한다.

시즌권을 구입하면 △60세 이상 시니어와 청소년(13세 이상~24세 이하)을 위한 특별할인 △대인 시즌권 구매 시 미취학 자녀 1명 시즌권 무료제공 △3인 이상 가족이 패밀리권 구매 시 총 금액의 10% 추가할인 △연속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5만 5천원까지 추가할인 제공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시즌권 구매 고객에게는 시즌 오픈일부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호텔 객실 할인권, 관광 콘도라 할인권, 눈썰매장 할인권, 스키/보드 장비 대여 할인권, 직영 식음업장 및 사우나 할인권, 시즌 락커 할인 등 다양한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중기중앙회, 베트남 태풍 피해 구호 성금 10억동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20일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기 실시할 마련한 10억동(원화 약 5.5천만원)의 성금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한베트남대사관(대사 부호)을 방문하여 성금 전달식을 갖고, 태풍 피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 중소기업계의 위로를 전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일 하노이, 하이퐁 등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Yagi)' 피해에 대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2,265명(사망 298명, 실종 35명, 부상 1,932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피해(주택 13만2,688채 손상, 5만7,857채 침수, 25만3,176헥타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성금이 베트남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경진원, 고용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운영기관 선정

재직자·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하 인자위)가 디지털·저탄소 등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지역 특화훈련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기술 발전에 고용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환경과 고용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인력들이 새로운 산업과 직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시스템이다.

전북 인자위(RSC)가 지역 내 특화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진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위기 등의 악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 이동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훈련 과정을 발굴·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전북지역 특화훈련 목표인원은 400명이며, 특화훈련은 전북 인자위(RSC)가 사업 수행을 주도하며, 전주 고용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게 된다.

전북 인자위(RSC)는 이번 달 중으로 지원대상 산업과 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10월 훈련기관 공모·선정, 11월 훈련개시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

에 나갈 예정이다. 특화훈련 사업관련 문의는 063-711-2158로 하면 된다.

한편 17개 시·도에 구성되어 지역 내 고용·인력안정의 핵심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 인자위사무국은 올해 6월 설치기관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무국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산대특 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윤여봉 경진원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도내 재직자 및 실직자분들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주평화 '지안리츠 임대 APT' 안전한 승강기로 탈바꿈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주 평화 지안리츠 국민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사는 아파트 준공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승강기 전면교체로 총 7개 동의 승강기가 기간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승강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 승강기의 운행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전문적인 거동 보조 도우미 용역이 운영되며, 계단 이용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도 제공되어, 입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엘리베이터에는 화재재동 발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제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승강기 전기를 상당히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공사가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공사기간 불편을 겪을 입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공사가 안전하고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한국경영인인증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지난 20일 기관의 인권경영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19년 인권경영지침 제정 및 현장 선언 이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모든 단계를 이행했으며, 연내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른 '구제절차 모의 실행' 및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관의 성숙된 인권 존중 문



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진흥원이 인권 존중을 중심으로 한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임직원들의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